

양계 방역정책 추진방안

방역정책, 현장과 조화 이룰 때 성공



홍기성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양계담당 서기관

양계분야의 생산액('07년도 기준)은 육계 10,275억원 (9.1%), 계란[산란계] 8,537억원 (7.8%)으로 축산 생산액(11.3조 원)중 약 17%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림 생산액('07년도 기준)의 품목별 생산기준에서는 육계 5위, 계란 7위로 농업분야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

근 FTA/DDA 등의 대외 개방 가속화, 국제 곡물가격 및 유가 불안 등에 따른 사료가격 문제, 웰빙 축산식품 선호증가 등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산업으로 양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축질병 근절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양계 농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큰 아픔과 시련을 겪었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성공적인 긴급방역 추진으로 조기에 종식하여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지만 최근 중국, 동남아 국가 등 인접국가의 AI 집중발생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

황이다. AI 등은 관련산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어 여러 관계부처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위기질병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가축전염병은 양계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중위생을 제고를 위해 근절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양계분야의 가축전염병 관리현황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염병은 전파·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제1종(15종), 제2종(30종) 및 제3종(18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가금류 전염병은 제1종(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제2종(추백리, 가금티프스, 가금콜레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오리바이러스성 장염), 제3종(닭마이코플라즈마병,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렐병, 닭전염성F낭병) 등 14종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국내 가금류 전염병 발생상황(표1)을 살펴보면, 고병원성 AI는 '03.12월 이후 지금까지 3차례 발생('03/'04년, '06/'07년, '08

표1. 가금전염병 발생현황

(단위: 건/천수)

구분		'05	'06	'07	'08
제1종	고병원성 AI	-	4건/148천수	3/46	33/118
	뉴캐슬병	18건/213천수	16/325	4/4	30/62
제2종	가금티푸스	88/1,652	71/707	54/543	31/160
	추백리	1/1	1/7	2/40	-
	가금콜레라	1/0.5	1/0.4	1/0.08	1/1
제3종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16/91	24/145	32/175	17/49
	닭마이코플라즈마병	4/56	13/127	1/10	13/15
	LPAI	7/46	10/10	36/83	118/109
	닭뇌척수염	2/19	6/74	3/85	6/16
	닭전염성기관지염	16/239	26/287	47/801	45/220
	닭전염성후두기관염	1/7	-	-	-
	마랙병	35/142	29/113	28/21	41/9
	닭전염성F낭병	21/166	19/265	14/351	20/60

※ 통계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축전염병 발생자료 관리시스템(AIMS)

년)하였고, 뉴캐슬병은 '97년부터 집중적인 방역 실시로 발생건수가 감소하다가 '08년에는 급증하였으며, 가금티푸스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 외 마이코플라즈마병, 저병원성AI 및 마랙병 등은 다소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

2. 주요 질병별 방역대책

1)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대책

작년 4월 고병원성 AI발생으로 발생시기가 다변화됨에 따라 그 동안 철새 도래시기인 동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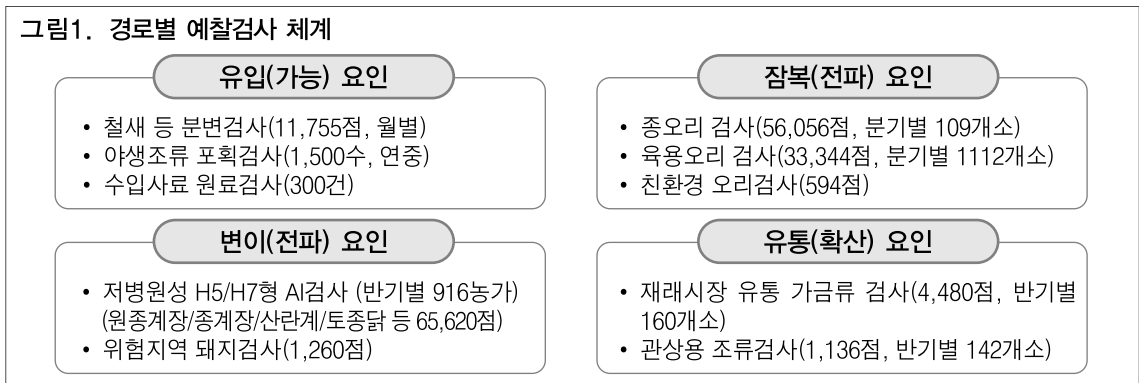
(11~2월)에만 특별방역을 실시해 오던 것을 '08. 7월부터 연중 상시방역 체계로 전환하여 예찰 검사, 검진체계 개선 및 방역관리 선진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AI 예찰 검사는 임상예찰 및 실험실 검사로 나누어지며, 임상예찰은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발생지역 등 재발 위험이 높은 22개 시군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설정, 시·군 예찰팀에서 매주 임상(전화)예찰을 실시 중에 있다. 실험실 검사

로는 철새를 통한 유입여부 조기 파악을 위해 철새도래지 분변검사와 야생조류 포획검사, 잠복 감염원인 종오리와 육용오리의 분기별 바이러스 검사,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가능한 저병원성 AI 검사(원종계장/중계장/토종닭농장/산란계농장) 및 전파 요인인 재래시장 유통가금류 검사 등 경로별 사전 예찰검사(10종 174,785점)를 실시하고 있다.(그림1)

최근 중국 등 주변국의 AI 집중 재발에 따라 지난 '08.11.12일부터 가축질병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방역기관별 상황실

그림1. 경로별 예찰검사 체계





을 설치 운영하고 농가의 출입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AI 발생국(중국 및 동남아 국가 등) 운항노선에 대한 검역 탐지견 투입 및 휴대품 집중 검색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AI 상시방역 체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방역기관의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AI 방역능력 및 대응기술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도 병행중이다.

2) 뉴캐슬병(ND) 방역대책

뉴캐슬병 발생 최소화 및 근절기반 구축을 위하여 백신 지원('97년 부화장, '01년 이후 부화장 및 농장) 확대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09년도의 경우 1,370백만수분의 백신(부화장 720백만수, 양계농가 650백만수)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ND 백신 지원 등에 따른 백신접종 관리강화를 위해 혈청검사(산란계 105,700수, 육계 342,200수)를 통한 항체음성 농가 및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부화장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백신접종 실태 점검(백신 보관, 접종시기 및 방법, 백신접종확인서 교부 등)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육 축종에 적합한 ND 백신이 선정되어 농가에 보급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함께 농가에서 ND 백신을 올바르게

게 사용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별 발생상황 및 백신 접종율을 고려한 지역 청정화를 적극 추진(제주도는 '06년이후 비발생, 청정화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3) 종계장 및 부화장 방역대책(가금티푸스 및 추백리)

'09년대 말 이후 양계농가에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가금티푸스와 추백리는 전 세계적으로 도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도태정책을 실시 중에 있다. 동 질병 근절을 위해 운용 중인 '종계장 및 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종계의 백신 사용금지, 종계장 및 부화장의 거래기록 작성 보존, 정기적 검사실시 및 점검(분기 1회) 등 종계장 및 부화장의 위생 및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삼계씨알 생산농가 및 삼계사육농가의 경우 대부분 사육환경이 열악하고 질병 통제 능력이 부족하여 가금티푸스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며, 효과적인 질병 검색 및 음성적 백신 사용근절 등을 위해 검사제도 개선(검사시기 조정, 2차 생균백신 접종계 검출법 도입) 등 '종계장 및 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개정하여 방역 관리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4) 기타 가금류 전염병 방역관리 방안

기타 가금류 전염병의 경우 농가의 책임 하에 자율적인 관리(예방접종 등)를 통한 질병전파 위험요소의 사전차단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을 통하여 발생(의심)시 이동제한,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농가 불편해소와 방역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08.11



월)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당해 가축의 이동제한 실시(질병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시 까지), 환축과 같이 사육중인 가축(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은 가축 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도축장(다른 농장) 출하 허용, 해당농장의 축사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적용해 나가고 있다. 저병원성 AI는 'AI 방역실시 요령 및 AI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마이코플라즈마병의 경우 종계장 검진, 예방약 공급 및 분기별 점검 등 사후관리(예방 접종증명서 발급확인 등)를 통하여 피해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FTA 확대 등에 따른 양계산업의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난계대전염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방지를 위하여 난계대전염병 모니터링 추진(10년 예정)을 통한 종계장 등에 대한 방역지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가금 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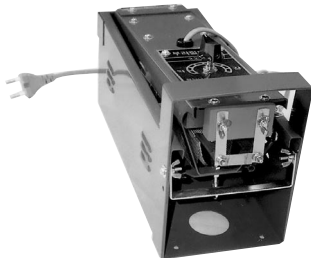
여 일본 측에 저병원성 AI(H5형 및 H7형) 발생시 가금육 수입을 금지하는 현행 위생조건을 '도' 단위의 지역 개념을 적용하여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만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허용하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위해서 미국 측의 현지 재실사 추진 등 수출 절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가축방역 정책은 현장과 조화를 이룰 때 성공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각 질병별 방역 조치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이 요구된다. 농가 단위의 질병 근절은 지역 또는 국가 단위의 질병 근절기반 구축과 청정화로 이어져 농가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수출시장 확대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축산 선진국은 가축 질병의 근절과 청정화 토대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하여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자. **양계**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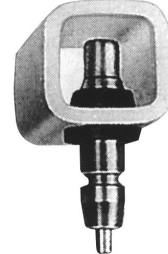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 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0-8934-6887